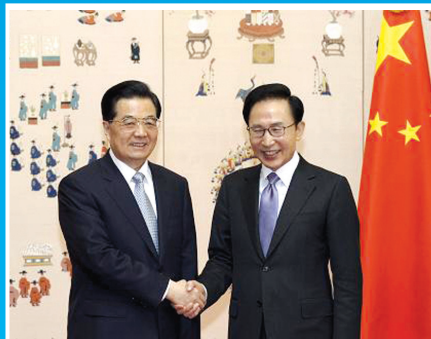


제 8 호



中國駐光州總領館期刊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2012년 7월 편역 · 발행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중국시화감상



## 牡丹

元·李孝光

富貴風流拔等倫  
百花低首拜芳塵  
畫欄繡幄圍紅玉  
雲錦霞裳涓翠茵  
天是有各能蓋世  
國中無色可爲隣  
名花也自難培植  
合費天工萬斛春



## 〈중국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개편공고

존경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

저희는 소식지 제작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더 나은 소식지 발간에 노력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의 희망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 8호부터 소식지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지 지면은 축소하고 페이지 수는 늘렸으며, 더불어 독자들의 열독 수요에 걸맞게 한국 친구들에게 환영받는 중국 역사, 문화, 여행 등에 관한 내용을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독자 여러분과 교류 할 수 있는 부분을 증설하고, 한국 우호 인사를 초청하여 소식지 집필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 풍부한 내용, 고품질의 편집, 정확한 번역 및 높은 제작 수준의 소식지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이 진정한 중국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  
2012년 7월



### 목록 CONTENTS

- 04 여수엑스포 중국관 소개
- 05 發現 : 한국의 美
- 06 중국 뉴스
- 08 “春回大地\_중국 각지 봄경치”
- 10 김종원 박사가 쓴 〈중국역사기행〉 (절록)
- 12 중국 신장 (新疆)
- 14 총영사관 뉴스
- 15 중국 꺾바로우
- 16 “니하오, 평어우!” “안녕, 친구” 사진콘테스트 - 행사 소개



ANNA

## 인류와 바다의 상생 - 여수 EXPO 중국관 소개

중국관은 여수 EXPO국제관-태평양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면적은 1,241평방미터로 가장 큰 외국 전시관 중의 하나이다. 중국관이 하루에 방문객 접대 능력은 6,400명으로 EXPO기간 동안 60만명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관은 “인류와 바다의 상생”, 즉 ‘자연계 만물은 모두 넓고 푸른 바다를 품고, 서로 기대는 일체다’라는 주제로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중국 전통 문화 중에 서로 화합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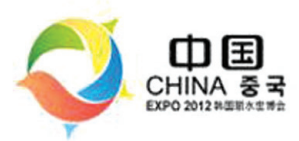
다고 강조한다.

중국관은 크게 바다의 물결, 바다의 기원, 바다의 사랑이라는 세 전시구역으로 나뉘져 있으며, 그 밖에 전시실 안에 부가적 기능 구역을 마련했다. 로비, 대기실, 해양 문화 회랑, 기념촬영 구역과 판매처 등이 있다.

### 중국관 Logo

중국관의 Logo는 바다에서 뛰고 있는 돌고래를 원형으로 디자인 했다. 해양 생태 체계의 상호관계·상호작용을 나타내며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동시에 로고 속의 파란색은 바다를, 노란색은 육지를, 녹색은 자연 만물을, 빨간색은 인류를 상징하여, 인류와 바다의 상생 및 “천하 공생”이라는 주제이념을 교묘하게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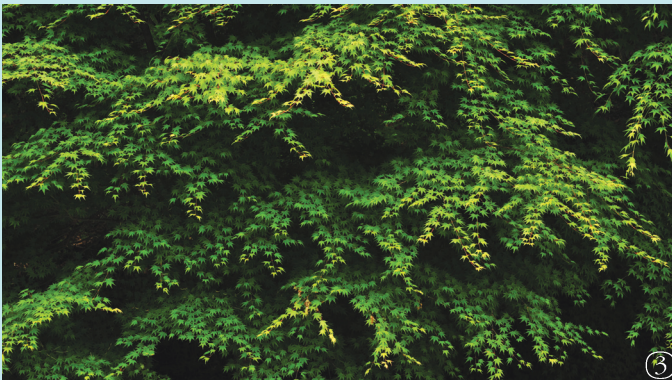
### “중국의날” 행사

6월28일, 여수엑스포 중국의날 행사가 개최되어,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박재완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하고 축하했다. 왕부총리는 축하 중, 중국은 1,8만 km의 해안선과 광활한 해역을 가진 해양대국이며, 역사상 “정화하서양(鄭和下西洋)”의 항해 기적을 세운 적이 있었다. 올해는 중한수교20주년을 맞이하여,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양국민간의 우의를 한 층 더 증진시키고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앞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發現: 한국의 美

-총영사관 영사 사진작품 전시-



①②왕대위 영사 ③④⑤⑥당랑 부영사

NO. 1 뉴스

1월 17일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GDP는 전년도 대비 9.2% 증가하였고, CPI는 전년도 대비 5.4%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장기간 안정되고,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원동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준다.



3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해도(海島)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해양국은 중국해역·바다섬의 명칭을 표준화 처리하였다. 국무원이 허가를 거치고, 국가해양국과 민정부는 조어도 및 부속도서의 표준명칭을 발표했다.



3월 5일, 제 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5차 회의가 개막하였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하였고, 올해 경제 사회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를 제기하였다: 국내 총생산은 7.5% 증가하고, 주민소비가격 상승폭은 4%로 규제할 것이다.



3월 22일,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북경에서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명예주석과 제5차 양당고위급회견을 가졌다. 후진타오는 양안(중국대륙과 타이완)에서는 타이완 독립 반대하고 “92공식”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보슝은 양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하지만, 해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붙이며, 동시에 “하나의 나라, 두개의 행정구역”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CHINA



3월 26일, 후진타오 주석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협력심화·핵안전수준향상>의 연설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이 핵안보영역

의 정책 주장을 전면적으로 모든 노력과 중요한 조치를 상세하게 논술하였다. 회의기간 중, 후 주석은 이명박 한국대통령과 회견을 가졌고, 양국 정상은 수교 20주년과 ‘중한우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추진할 것을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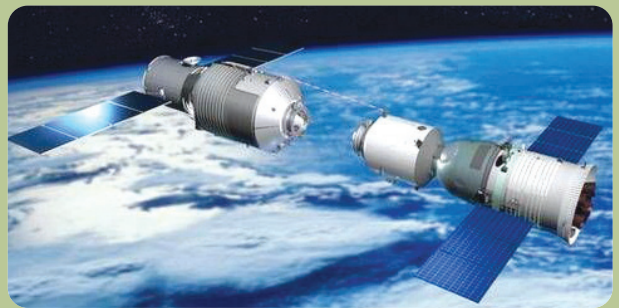
5월 21일 발표된 2012중국 도시경쟁력 청서에는 2011년 중국 대륙과 홍콩, 타이완 294개 도시 경쟁력지수 순위를 매겨졌고, 10위 안의 도시로는 순서대로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톈진, 항저우, 칭다오, 창사 순이다.



4월 30일, 중국은 “장정 3호” 로켓으로 두 개의 “북두”항법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1로켓 2위성”의 방식으로, 두 개의 위성을



지구 위성궤도에 동시 발사하는 것이다. 2020년 전후 중국은 곧 30여개 위성으로 구성된 “북두 항법 위성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지구 전체를 뒤덮는 높은 고정밀도 위치, 항법과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6월 16일, 18시 37분, “선저우 9호” 중국우주선을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하여, 18일 14시경, 우주정거장 텐궁(天宮) 1호와 도킹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3번째로 유인 우주도킹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 NEWS

# “春回大地-중국



신장(新疆) 초원



티베트(西藏) 복숭아꽃



섬성한중(陝西汉中) 유채꽃



복건(福建) 토루



사천(四川) 복숭아농원



청해(青海)



귀주(貴州) 유채꽃



운남(雲南) 곡정





# 각지 봄경치”



내몽골(内蒙古) 초원



낙양(洛阳) 모란꽃 축제



강서(江西) 유채꽃



소주(苏州) 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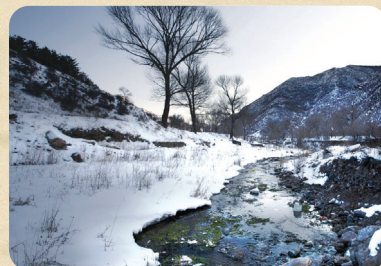
무한(武汉)대학교 벚꽃



안휘 아오허(安徽姚河) 마을



대만(台湾) 아리산



할빈(哈尔滨) 춘설



**河南省 · 河北省 · 西安 · 江蘇省 · 浙江省 · 內蒙古**

중국을 보다 더 깊숙이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국에 대한 편견과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육안보다는 심안으로, 생각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중국을 여행할 것 같은 오갈만족 이상의 체험여행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땅이 매우 넓고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만 없을 뿐 한꺼번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매력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과거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중국여행을 통해 정저지(井底之蛙)의 삶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풍요롭고 맑은 영혼으로 변모한 자신과 중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머리에〉 중에서

신세기<sup>21세기</sup>에 있어서 중화사상<sup>세계</sup>은 세계인들의 중국관광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세 술은 새 포대에 담은 것처럼 중화사상에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의 세계사는 원의 논리가 우세하게 지배함으로써 인류가 수많은 전쟁과 죽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새로운 중화사상은 문화와 나눔의 힘으로 인류 전체가 여유와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세계사를 열어가는 것이다. 물리적인 강함보다는 문화적인 부드림과 유연함이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이 되길 바란다. 거대 중국은 찬란한 문화의 위력을 통해 부드러운 세상을 리드해 갈 것이다. 김종원 박사의 『중국5성+1문화 유적답사기』는 그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도 김박사가 지속적으로 중국문화관광에 보탬이 되는 좋은 책을 내주시길 기대한다.

—〈추천의 글〉 중에서

**빛고을방랑자 김종원 박사의 중국 관광 제제로 즐기기**

# 중국 역사기행

김종원 지음 / 456쪽



(주)경향뉴스원 | 편집 02-2281-7066 | 판매 02-2281-7067 | 인터넷구입 <http://book.skchannel.com> |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 신문 뉴스원(www.newsonline.co.kr)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김종원 박사가 쓴 <중국역사기행> (절록)

...한·중 수교가 이뤄진 1년 후인 1993년 10월, 관용여권을 들고 중국이란 미지의 나라에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에는 베이징으로 가는 직항노선이 없어 홍콩에서 열차를 타고 주룽반도(구룽반도)를 건너 광저우(廣州)를 경유해 베이징에 입성하였다. 중국과는 수십 년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높은 장벽을 쌓고 있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 당시만 해도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빨갱이와 도깨비들이 우글거리는 줄로만 알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아닌 줄 알았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이란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울 정도로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주권을 되찾고자 독립운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망명했고,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인들로부터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1949년 국공내전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우리가 중공군이라 부르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여한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게 되고 중국과도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만해도 고층 빌딩

은커녕 100㎡(30평) 아파트는 찾아보기조차 힘들었고 겨우 17㎡(5평) 아파트가 준비했다. 도로사정도 좋지 않아 포장미 안 된 도로가 많아 먼지를 내고 달리는 고물자동차들 뿐이었다. 도로는 자전거가 홍수를 이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단행한 이후 중국의 경제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본 중국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상에 세계인들은 깜짝 놀랐다. 막강해진 중국의 힘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한정된 지역만이 아니다. 중국전역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하는 중국이다. 다만, 새 역사를 쓰면서 개발논리에 밀려 과거 역사의 흔적이 하나 둘씩 지워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

그동안 나는 개인적으로 또는 중국국가여유국 초청을 받고 수십 차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중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우리와 이웃해 있는 중국만큼 광활한 영토와 수천 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물과 유

적이 많은 나라는 별로 보질 못했다. 비록 문화대혁명과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수많은 문화재와 전통이 파괴되거나 사라졌지만, 볼 것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중국 고대국가의 흔적과 소수민족들의 삶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나라는 드물다. 내가 중국을 여행할 때마다 보고 느낀 중국의 진정한 힘은, 단지 엄청나게 방대한 영토와 인구가 많다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그리고 중국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중화사상(中華思想)'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들이 관광사업에 쏟는 열정과 친절과 겸손에서 중국인들의 저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중국의 여러 성(省) 중 역사가 가장 깊고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5개성만을 엮어 편찬하였다. 허난성(河南省)은 '五千年歷史看河南' 또는 '中華之源 錦秀河南'이란 말이 있듯이, 허난성은 중화문명의 발상지이자 중국 고대역사문화의 요람지이다. 허베이성(河北省)은 중화민족 발상지 중의 한곳으로 만리장성의 동부기점이며 열하일기의 본향이다. 시안(西安)은 '三千年歷史看西安'이란 말이 있듯이, 중국역사의 축영이며 중국문화의 보고이다. 장쑤성(江蘇省)은 '上有天堂 下有蘇杭'으로 수향과 어미지향의 도시이며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저장성(浙江省)은 중국공산당의 탄생지이자 김구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중국 명언 중에 '讀萬卷書 行萬里路(독만권서 행만리

로)'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명 말기 때 유명한 문인인 동기창(董其昌)의 저서 『畫禪事隨筆』에 나온 말이다. “모르지기 君子는 만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만 리길을 여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행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그러나 막연히 꿈만 꿀 것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 배낭을 꾸려 떠나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떠나본 사람만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잠시 바쁜 마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볼 것과 먹을 것과 느낄 것이 산재해 있는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으로의 여행을 권한다. 중국을 보다 더 깊숙이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국에 대한 편견과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육안보다는 심안으로, 생각보다는 마음으로 다가가 중국을 여행할 것 같으면 오감만족 이상의 체험여행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땅이 매우 넓고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만 없을 뿐 한꺼번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 매력이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과거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중국여행을 통해 정저지와(井底之蛙)의 삶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풍요롭고 맑은 영혼으로 변모한 자신과 중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壬辰年(2012) 정월 龍鳳골에서  
빛고을 방랑자 工學博士 金鍾源



# 중국 신장(新疆)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국 북서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66.49만km<sup>2</sup>로 중국 대륙 총면적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성급 행정구이다. 자치구 정부가 소재한 우루무치시는 몽골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란 뜻이다. 신장은 다민족이 집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위구르, 한, 카자흐, 회, 몽고, 러시아 등 47개 민족이 있다. 신장 총 인구는 2181.3만 명이고, 그 중 소수민족이 60%를 차지 하고 있다.

신장 북부는 알타이산이 있고 남부는 곤륜산이 있으며 천산이 중부를 가로질러 있어 신장은 남북 두 부분으로 분리된다. 신장은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크다. 경지 6160.65만 묘, 초원 총 면적은 7.7억 묘, 빙하 2.4 km가 있다. 신장은 광산 종류가 많고 대량 저장되어 있다. 이미 발견된 광산은 138종으로 그 중 석유의 예측 잠재량은 208.6억 톤, 천연가스 10.3억 m<sup>3</sup>, 석탄은 2.19만억 톤이다.



▲ 신장 소수민족들과 같이있는 후진타오 주석

신장의 자연경관은 신기하고 독특하며, 문화는 두텁게 누적되어 있고, 민족풍토와 인정이 매우 진하며, 유명한 역사 유적이 많은 곳이다. 유명한 자연명승지로는 천지, 카나스 호수, 나라티초원, 새리목호수, 파안부르크초원이 있다. 신장은 인문관광자원이 풍부하고, 5,000여 km 인 실크



천 산



카나스



오채성



목장

로드에는 수 많은 고대 도시, 무덤, 천불동, 둔전유적 등 인문적 경관이 있고 고창고성, 누란유적지, 키질천불동, 항비무덤 등 중서 문화가 합류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최근 몇 년, 신장은 생태 환경 개선, 천연 산림자원 보호, 평원 녹지화, 사막식물 보호 그리고 타림분지, 준가얼분지 주변 사막화 방지 등 생태공정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종 자연보호구는 28곳으로, 그 중 국가급 자연보호구 9곳, 국가급 생태기능 보호구 2곳이 있다.



가옥관



크라미아 유전

중국은 신장이 다민족인 현실에 맞춰 민족, 종교, 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고, 소수민족 구역 자치제도를 실행하여, 각 민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 실시로, 종교인사, 종교 장소 또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존중·보호하고 있다. 23,900여 개의 이슬람교 사원이 있고, 33.8만 명의 소수민족 공무원이 있으며, 공무원 총수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신장 소수민족들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 그리고 풍습은 충분히 존중 받고 있고, 소수민족의 교육, 문화 사업도 큰 발전이 있었다. 각종 교육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수민족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신장 TV 방송은 위구르·한·카자흐 3종류의 언어로 방송되고, 라디오방송은 5종의 언어로 방송되고 있으며, 신문은 6종 언어로 출판 발행되고 있다. 또 소수민족 언어의 신문은 134종, 잡지는 206종에 달한다. 신장위구르 무카무예술은 유네스코에 “세계 무형문화 유산” 대표작으로 선정되었고, 이 외 14가지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단에 포함되었다.

# 신장의 역사

신장은 예전에 중국의 서쪽에 있는 영토라고 하여 서역(西域)이라 불렸다. B.C. 60년, 한나라는 “서역도호부(西域都护府)”를 설립하고, 그후 신장은 정식으로 중국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기원 552년 돌궐족(突厥)은 서역을 통일시켰다. 640년, 당나라는 고창성(高昌城)을 점령하고 서주(西州)로 이름을 바꾸며 “안서도호부(安西都护府)”를 설립했다. 그후에 구자(龟兹)로 옮기고, 천산이남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다. 702년, 당나라는 “북정도호부(北庭都护府)”를 설립해 천산 이북 지역도 관할하였다.

당나라 중후기, 토번(突蕃)정권이 서역을 공격하고, 신장 대부분을 점령했다. 그후 위구르족(回纥)때문에 서쪽으로 물러났다. 840년, 위구르족은 몽고고원의 서쪽으로 옮겨갔고 서주를 세우며 위구르족 정권과 카라한 왕조를 세웠다. 1132년, 거란족은 서역을 통일하고, 서하왕조를 세웠다. 1218년, 징기스칸 군대는 서쪽을 정벌하고, 서하를 패배시켰다. 1271년, 쿠빌라이(忽必烈)는 원조를 건설했고, 서역을 통일하고 원조 정부를 관리했다.

14세기 말, 서부지구는 여러 몽고귀족 정권들이 병존했고, 1543년 예얼창간국은 서부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다. 명나라는 서부지역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미위(哈密)를 설치해 서부지역의 최고행정기관과 군사기관으로 관리하고 지키도록 지정했다.

청나라는 신장을 통일한후, 그곳에 이리(伊犁)장군을 주둔했다. 18세기, 준갈(准葛尔)귀족과 무슬림(穆斯林)교파는 계속해서 크고작은 반란을 일으켰고, 건륭(乾隆)황제는 1755년과 1759년 군대를 파견하여 반란을 평정했고, 신장을 다시 통일했다. 1771년 몽고 토르후트 부락은 8개월의 고난을 겪고 러시아 불가강 유역에서 조국으로 돌아왔으며, 약 1세기 반 동안의 망명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아편전쟁후, 제정 러시아는 무장이민, 군사거점과 과학시찰 및 불평등조약 등 수단으로 중국 서부 44만여km<sup>2</sup>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했다. 아쿠브 베그는 영국과 러시아 제국주의의 지지하에 1865년 신장을 침략하고, 허텐, 아커쑤, 쿠처 등 7개도시를 점령했고, 러시아도 이리를 침략했다. 1875년 청나라는 좌종당(左宗棠)을 장군으로 약 8만대군을 파견

하고, 1878년에 이리지역을 제외한 모든 신장 영토를 회복시켰다. <중·러 이리개정조약>으로 청정부는 이리지역 대부분도도 영토를 되찾았다.

1884년, 청정부는 신장에 정식으로 성을 설치 했고, “옛땅을 새로 되찾는다”라는 뜻으로 서역을 “신장”으로 개칭했고, 성도를 이리에서 우루무치(乌鲁木齐)로 옮겼다.

1949년 신장은 평화롭게 해방되었고, 1955년 “신장 위구르자치구”가 성립되어 신장은 경제발전, 민족단결, 종교화합, 사회안정의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품게 되었다.



## 총영사관 뉴스

1월 18일,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은 화교 신년 리셉션을 거행했다. 영사구역내의 화교인, 중국 교사와 유학생 대표, 김원숙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지방경찰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 강운태 시장은 영상 축하메세지를 전달했으며, 중국어로 중국인에게 신년인사를 전했다.



2월 28일~29일, 한국 전라남도 박준영 도시자의 초청으로, 염봉란 총영사는 담당영사들과 함께 전라남도를 방문했다. 중한수교 20주년 경축과 전남과 중국지방의 발전관계 추진 등으로 박 도시자와의 회견이 진행됐다. 염 총영사는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 전남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하고, 박균조 강진군수를 만나 강진군의 마량항과 강진청지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3월 2일, 염봉란 총영사는 광주시립미술관의 초청을 받아 황영성 관장과 회견했다. 염 총영사는 총영사관은 광주시립미술관과 중국미술관의 우호관계가 확대되길 바라며 지지와

협조를 제공하고, 중한 화가의 작품을 통해 양국 국민의 양국 문화예술의 감상과 상호이해가 증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3월 6일, 염봉란 총영사는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과 회견을 가졌다. 염 총영사는 이 청장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청장으로 취임했음에 축하를 전하며, 광주 사회 치안을 지켜주시고, 현지 화교와 중국유학생 등 중국 국민에게 보내준 많은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3월 14일, 염봉란 총영사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회견을 나눴다. 염 총영사는 작년 일년간 강 시장의 창조형 행복도시 구축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하며, 광주시와 중국의 관계발전을 지지하고 여러차례 중국측 대표단과 중국여행객에게 친밀 회견을 가진 것에 감사 표했다. 강 시장은 작년에 중국 북경, 대련 등 도시를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니 개혁 개방이 중국에게 거대한 변화와 활력을



불어 넣을걸 느꼈으며, 본인과 시청은 총영사관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협력관계로 광주시와 중국관계의 발전이 또한 계단 상승하도록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4월 24일, 염봉란 총영사는 광주일보 김여송 신임사장을 만나, 더 나은 중한교류 등 활동의 선전보도의 의견과 견해를 교환했다. 또한 중한수교 20주년과 관련된 활동을 공동주최 함으로써 견해를 나누고 공동된 인식을 달성했다.



4월 25일, 염봉란 총영사는 전라북도 고창군을 방문하여 이강수 군수와 회견을 가지고 지석묘박물관과 국순당 고창명주주식회사를 참관했다.



5월 1일, 염봉란 총영사는 전라남도 완도군을 방문하여, 김종식 군수를 만나고 완도탑, 장보고박물관과 청산도를 시찰했다. 송영익 전라남도청 경제통상과장, 윤명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 회장, 총영사관 영사관원 등이 활동에 참가했다.





## 한국 탕수육의 원조~ 중국의 꺠바로우 (锅包肉)

- 주재료 : 돼지 등심살
- 부재료 : 식초, 파, 생강, 조리용 술, 진간장, 전분 케첩, 소금, 닭고기다시다

### • 만드는 법

1. 등심살은 1.5mm 정도의 두께로 썬 후, 소금과 조리용 술을 이용해 버무리고, 재어 놓는다.
2. 파와 생강을 길게 썬 후, 가시연 소스를 만들기 위해 남겨 놓는다.
3. 전분에 약간의 물을 넣고 반죽하고, 반죽 속에 절여진 고기를 넣고, 골고루 묻힌다.
4. 솥 안에 기름을 붓고, 잘 버무리진 고기조각을 솥 안에 넣고 황금색이 될 때까지 튀긴다.
5. 볶음용 냄비에 기름을 넣고, 길게 썬 파와 생강을 넣고 골고루 볶아준다.
6. 케첩과 식초, 진간장, 조리용 술 약간, 전분을 넣는다.
7. 잘 튀겨진 고기 조각을 가시연소스 안에 넣고, 골고루 스며들게 볶아준 후, 썰어 놓은 파를 뿌린다.



## 간단한 중국의 요리를 배워 봅시다!

꺠바로우(锅包肉)는 동북 지방의 유명한 음식으로, 이미 1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청조말년, 하얼빈 빈장다오(滨江道) 다오타이푸(道台府)에는 쩡싱원(郑兴文)이라는 유명한 주방장이 있었다. 다오타이푸에는 종종 외국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그들 대다수는 달고 신 음식을 좋아했으며, 중국 북방의 짜고 맛이 강한 음식이 잘 맞지 않았다. 쩡싱원은 몇 차례 고민 끝에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개발하게 되었다. 원래 짠맛이 강한 “지아오샤오로우콰이(焦烧肉块)”라는 짠맛이 강한 요리를 달고 신맛을 가미해 조리하였다. 쩡싱원은 조리법을 바탕으로 “꺠바(爆)로우”라고 불렀고, 후에 “꺠바(包)로우”로 이름이 바뀌었다.



# "니하오, 평여우!" "안녕, 친구!" 사진콘테스트



**행사기간** 6월6일 ~ 8월24일 (제출완료시간 : 6월 6일 18:00 ~ 8월 8일 18:00)

- | 참가자격** · 한국내 한국 국민 및 상주 중국 국민  
(단, 대상 및 2·3등 상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 지역 출신만 수상 가능)
- | 작품내용** · 상대방 나라의 자연·인문 경관, 민속문화, 행사공연, 일상생활
- | 참가방식** · 행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개인당 1점씩 출품 가능.
- | 작품제원** · 흑백·컬러 상관 없음. jpg파일, 해상도72dpi, exif 정보 기재 필요. 사진 긴쪽 길이는 1400~2000 pixel 이내. 필름 작품은 스캔하고 이상 표준의 파일로 전환 뒤 제출. 모든 참가자의 실명·국적·연령·연락처 및 사진 촬영시간·장소·요약소개 등 기재. 최종 수상자에게 별도로 고지하고 원본사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출력·전시할 것입니다.
- | 시상내역**
  - 대 상 1점 : 상패+2인 3박4일 중국여행권(2인1실 기준, 왕복항공권 및 비자 비용 포함)+중국 명주1병
  - 2등상 2점 : 상패+중국왕복항공권1장+무료 중국비자1차+중국 명주1병
  - 3등상 3점 : 상패+중국명주1병
  - 격려상 30점 : 상장+중국 공예품  
(이상 수상작품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할 것입니다)
  - 기념상 100명 : 중국 기념품  
(행사 홈페이지로 작품제출시 받는 참가번호로 시상식에서 추첨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 | 주의사항** · 출품작품은 저작권·초상권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합성사진은 수상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작품을 제출하면 저작권은 작가 본인 소유이지만, 행사 주최측은 해당 작품에 대한 인쇄·전시할 사용권을 가질 것입니다.
- | 문의처**
  - 주광주중국총영사관 TEL : 062) 385-8874
  - 광주일보사 TEL : 062) 2200-616
- | 공동주최**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광주일보**
- | 협찬기관** · 광주광역시청·전라남도청·전북도청·광주시립미술관·광주관광협회·광주사진동호회
- | 후원기관** · 중국국가여유국서울판사처·주한중국상회·중국남방항공·중국동방항공·중국국제항공·광주은행·호남대공자학원·광주대학교·한중우호협회·농협은행동광주지점·우리로광통신

<http://2012cn-krphotocontest.com/>

